

■ 르포 - 단풍보다 붉게 달아오른 케이블카 논란

“설치” “반대” 지리산이 뜨겁다

구례·남원·산청·함양군 앞다퉀 추진
환경단체 등 ‘SOS 지리산’ 산상시위
탐방객들도 “개발” “보존” 양론 팽팽

■ 지리산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추진 현황

지자체	예정지	노선길이	자연보존지구구간
전남구례	산동은천~노고단	4.5km	2km 미만
전북남원	범사골~반야봉	6.7km	약 3.32km
경남산청	중산리~제석봉	5.0km	약 2.5km
경남함양	백무동~제석봉	-	약 3.9km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제공)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순해설가협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 케이블카 반대 시민행동' 회원 10여명이 지난 27일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에서 탐방객들에게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홍보 전단을 나눠주면서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노고단=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이 케이블카 설치 문제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5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구례군 등 지리산을 끼고 있는 4개 군이 앞다퉀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성지 지리산을 위한 불교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 및 종교계 인사들은 지난 12일부터 천왕봉과 반야봉, 노고단에서 '지리산케이블카 설치 반대 1인 시위'에 돌입한 가운데 '광주·전남 케이블카 반대 시도민행동'도 산상시위에 동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보존지구 안에 케이블카 거리 규정을 기존 2km에서 5km로,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9m에서 15m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구례군 등 지리산권역 4개 지자체의 케이블카 설치도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돼 시민사회·종교계 인사와 산악인들이 이같은 개발계획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노고단에서 만난 광주·전남 케이블카 반대 시도민행동 박미경(여·46)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소통을 거부하는 환경부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1인 시위에 동참했다”며 “지리산에 케이블카가 놓이면 월출산 등 지역 내 명산에도 잇따라 케이블카가 설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오구균(56·녹지생태학) 호남대 교수는 “이번 개정은 덩치가 큰 지리산과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길이와 높이를 완화하려는 환경부의 꼼수”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리산 노고단에는 술집이나 음식점 등이 들어서 난잡하게 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외국에서도 과거 국립공원을 관광지 개념으로 규정하고 개발한 사례는 있으나 지금은 모두 '보존 대상'으로 규정하고 개발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주옥(여·43)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사무처장은 “정부의 국립공원 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1인 시위, '지리산 SOS'라고 적힌 대형 풍선도 띄우는 등 갖가지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으나(정부는) 도무지 반응이 없다”며 “자연을 보존해야 할 환경부가 '관광객 편의' 등을 내세워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포함되는 구간이 2km 이하여서 개장 안 시행과 관계없이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구례군은 노악자나 장애인 등에게 탐방기회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 ▲등산로 이용객 분산 등의 이유로, 환경부 승인이 이뤄지면 케이블카 설치에 들어가 이르면 2012년 말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구례군은 4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케이블카가 설치·운영되면 연간 110만명 이상이 케이블카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군은 이용객 편의

를 위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식당 등 편의시설을 케이블카 종점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고단을 찾은 탐방객들은 케이블카 설치 논란에 대해 뜻이 갈린다. 부산에서 지리산을 찾은 장영길(70)씨는 “신체적 약자에게도 폭넓은 탐방 기회를 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나, 노오영(69·충남 아산시)씨는 “국립공원은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장애인 차별 조항’ 광주 12·전남 8건

장애이권포럼 광역 지자체 법규 조사... 광주 최다

지난해 4월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에는 여전히 장애인 차별적 조항이 많아 정비의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28일 내놓

은 ‘장애관련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와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 8천112건 가운데 장애인 차별적 조항은 128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단체별로는 광주와 대구가 12건, 전남은 8건으로 많았으며, 서울과 경기(각 4건), 울산(2건) 등은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문화·예술과 체육 활동 분야의 차별적 조항이 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 23건, 사법행정 절차 및 참정권 19건, 재화와 용역 제

공 16건 순이었다. 대표 사례로 광주시의 지방공무원 채용 규칙에 나와 있는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 등의 기준은 뇌병 변 또는 언어장애인을 차별하는 요소이며, ‘용모’는 모든 장애인을 차별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전남도의 섬진강도산어류생태관 관리운영 조례에 규정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정신 장애자의 관람제한’도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

면허 취득 열기 ‘후끈’

전남 서해안지역

전남 서해안 지역에서 모터보트와 수상 오토바이 등을 조종할 수 있는 수상레저 기구 면허 취득이 크게 증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올해 들어 목포 등 전남 서부 지역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 취득자는 8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7명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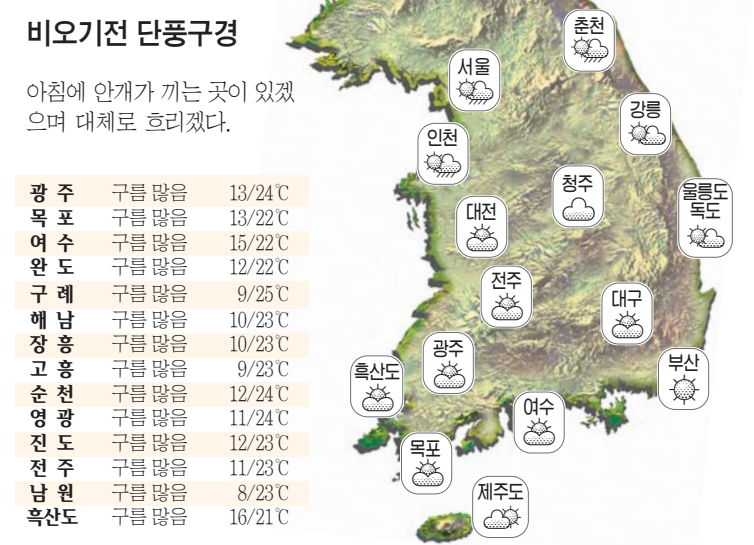
이는 국민소득 증가로 삶의 질이 높아져 바다에서 레저활동을 즐기려는 수상레저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경은 섬으로 직접 찾아가 시행하는 ‘출장시험’이 활성화되면서 도서지역에서도 수상레저 면허 취득 붐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허를 취득하면 수상 오토바이와 모터보트 등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 기구를 운전할 수 있다.

목포해경은 이달 말까지 수상레저 활동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를 한 후 다음 달부터 20일간 무면허 조종 등 불법 수상레저 활동 특별단속을 내실 계획이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1분 해질 17시 41분 달뜨기 14시 59분 달짐 02시 06분



지역	구름	기온
광주	구름 많음	13/24℃
목포	구름 많음	13/22℃
여수	구름 많음	15/22℃
완도	구름 많음	12/22℃
구례	구름 많음	9/25℃
영광	구름 많음	10/23℃
장흥	구름 많음	10/23℃
고흥	구름 많음	9/23℃
순천	구름 많음	12/24℃
영광	구름 많음	11/24℃
진도	구름 많음	12/23℃
전주	구름 많음	11/23℃
남원	구름 많음	8/23℃
목성도	구름 많음	16/21℃

바다	중랑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0.5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남	0.5~1.5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남	0.5~1.0m	☀	🚑	🏠

바다	중랑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0.5m	목포	10:47	04:16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목포	23:13	11:11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남	0.5~1.5m	여수	06:04	00:04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남	0.5~1.0m	여수	18:29	12:03

광신대학교 (광주) 605-1114 / (대전) 605-1115

광주·전남 연일 안개
항공기 결항 등 불편

광주·전남지역 공항이나 강·하천을 중심으로 연일 짙은 안개가 끼어 항공기가 결항되는 등 교통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9일까지 아침안개가 나타나다가 30일부터 사라질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기상청은 이어 “최근 광주·전남지역의 대기가 안정되면서 상·하층 대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 안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광주공항에 저시정 경보(가시거리 800m 이내)가 내려지면서 오전 7시 광주에서 출발해 김포에 도착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1300편 등 광주와 김포를 오가는 4편의 항공기가 결항되는가 하면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운전자들의 교통 불편이 이어졌다.

광주공항 측은 3일째 항공기 결항이 이어지고 있으나 저시정 경보가 내려지면 자동으로 고객에게 전달되므로 고객불편은 없었다고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남대·고려대 ‘MBA’
국내 대학원 첫 학점 교류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원장 정성창)은 28일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원장 장하성)과 국내 대학원 중에서는 최초로 경영전문석사과정(MBA) 학점교류를 2010학년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두 대학은 이날 고려대 본관 1층 회의실에서 학점교류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로써 양 대학에서 최대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두 대학은 이번 교류를 시작으로 공동연구, 교수법 개발, 학술자료 및 정보 공유, 시설물 이용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 한국형 MBA가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대경영대학원 정성창 원장은 “광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서울 등 수도권으로 옮길 경우 학점 취득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 교류로 이런 고통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독거노인 겨울나기
저체장애인 돕기성금 모금
355-81지구 회관 건립기금추진을 위한
박일무 시집출판 기념회
하늘의 별을 따다
입시 | 2009. 10. 30(목) 오후 4시
장소 | 조선연변성 3층(상무동 3층) 300호
주최 | QD 광주시 노인협회 · 한국문인협회
후원 | 한국제리아인스협회 355-81(광주)지구
특별후원 | 한국제리아인스협회 한국문인협회
박일무 시집은 국어학계에서 최초로 300여명의 시인이 참여한 100만부 돌파